

“술꾼”이라 행복합니다!” 연기자 이선빈(이진경·27)과 정은지(28)가 입을 모아 외친다. 최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티빙으로 공개해 화제몰이한 드라마 ‘술꾼도시여자들’(술도녀)을 향한 진득한 애정이 묻어난다. 극중 동료 한선희(31)와 술로 우정을 다졌지만, 실제 이들을 뭉치게 한 건 “남치는 흥”이다. 이미 ‘찐친’(진짜 친구)이 된 듯하다. 11월29일과 12월1일 서울시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각각 만난 이들은 “친구들과 얼른 시즌2로 만나고 싶다”며 설렘을 숨기지 못했다.

“욕설 퍼붓는 장면, 술의 힘 빌렸죠”

연기하면서 술과 친해진 이선빈

센 장면들 폭발적인 반응에 다행
질리지 않는 배우 되는게 목표

이선빈은 자리에 앉으면서부터 어깨춤을 띄웠다. 극중 예능작가 캐릭터의 ‘하이텐션’(흥) 그대로다. 그는 “정말 비슷한 구석이 많다”며 웃었다. “기분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아, 친구들 사이에서 ‘개그캐’(웃긴 캐릭터)라는 것도요. SNS에 웃긴 사진만 골라 올릴 정도로 웃기는 데 진심이거든요. 무엇보다 (정)은지·(한)선화 언니가 좋아해줘 편하게 연기했어요. 서로 엄청 친해져 ‘케미’가 잘 살았죠.”

이전에는 “술과 인연이 거의 없”었지

만, ‘술도녀’로 “안주와 술의 조합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다. 극중 무례한 회장 역 박영규에게 욕을 퍼붓는 장면은 “멘정신으로는 도저히 못 찍겠다” 싶어 술의 힘을 빌렸다. “술 마시며 찍은 장면이 꽤 돼요. 욕설도 많아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소위 ‘센’ 장면들이 부담스럽고 불편하지 않을까 했죠. 그런데 웬걸? 폭발적인 반응을 보고 다들 술자하고 속 시원한 작품을 기다렸구나 싶었어요. 언니들과 ‘다행이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4년째 사귀어온 배우 이광수(36)도 ‘술도녀’의 “열렬한 팬”이 됐다. 매회 “이 장면 정말 재미있다”고 록 집어 반응해줬다”며 이선빈은 웃었다.

“칭찬을 받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타입이에요. 그런 제 성격을 잘 알아서 (남자친구)평

소에는 조언을 따로 해주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저와 상관없이 정말 재미있게 봤나 봐요. 자주 얘기하더라고요.”

매사 발랄하고 통통 튀는 성격에 한때는 “배우답지 않다”는 비판도 들었다. 이젠 “하나도 신경 안 쓴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다운 모습을 팬들이 좋아해준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연기할 때 내면에 숨겨진 진지한 면, 발랄한 면을 꼬집어내 진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배워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겨 더 신나다”, “궁정 에너지”를 전파하는 것이다. “질리지 않는 배우가 되는 게 평생의 목표예요. 거기에 하나가 추가됐어요. 제 얼굴만 봐도 웃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힘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적시자!’ 전배사 유행하니 뿌듯해”

새로운 인생 캐릭터 만난 정은지

우정과 삶을 고민하게 해준 작품
맥주 한 캔에 먹태, 이게 찐 행복

정은지는 “‘적시자!’를 유행어로 만들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극중 이선빈·한선화와 “마시자”를 대신해 수도 없이 외친 한 마디는 요즘 인기 전배사가 됐다. 그는 “주변으로부터 ‘너 때문에 술 명진다’는 말을 엄청 들었다”고 말했다. “제가 연기한 종이접기 유튜브 강지구는 참 애잔해요. 살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많아 사회성이 없고, 서른에서야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돌아보는 친구거든요. 10월 초 촬영을 마쳤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다시 울고 웃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무뚝뚝하고, 욕도 잘하지만 위기에 놓인 친구들을 보호하는 캐릭터로 여성 시청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나도 지구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하고 웃었다. “촬영하면서 평소 술로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자연스럽게 ‘난 그들에게 이런 친구일까?’ 궁금했어요. 실제 우정이나 삶의 방식을 생각해본 기회였죠. 또래 여성 시청자가 공감할 만한 고민을 디테일하게 살린 덕분인 것 같아요.”

2012년 tvN ‘응답하라 1997’(응칠) 성시원을 넘어 새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응칠’ 신원호 PD도 “성시원 성인 버전”이라며 칭찬해줬다고 한다. 2018년 JTBC ‘언터처블’ 이후 3년만의 주연작으로 얻은 호평에 그는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제 나이가 다가 고민의 연속인 시기잖아

요. 배우로서 많은 작품에 나서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고민하고, 가수로서도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적이 많았죠. 이제야 비로소 답답한 마음이 좀 가신 것 같아요.”

그룹 에이핑크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한 지 꼭 10년째다. 이를 기념해 31일 팬미팅도 준비하고 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듯, 별다른 느낌은 안 든다”면서도 “열심히 살았다 싶다”며 미소 지었다. “얼마 전 남동생이 ‘행복이 뭐라 생각해?’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거창하지 않아’라고 답했죠. 주문한 안주가 내 입맛에 딱 맞았을 때 희열과 맥주 한 잔! 그게 행복 아닐까요? 마요네즈에 청양고추 송송 썰어 넣은 소스에 먹태를 탁 찍어 먹으면 행복이 배가 되죠. 하하!”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오! 문희’ 한국영화 6년만에 중국서 개봉

한국영화가 6년 만에 중국에서 개봉한다. 1일 영화계에 따르면 나문희 주연 ‘오! 문희’가 3일 중국 극장에서 관객을 만난다. 한국영화의 중국 정식 개봉은 2016년 중국 측의 한한령 규제 이후 처음이다. 이에 앞서 2015년 9월 ‘암살’이 현지 상영됐다. ‘오! 문희’의 개봉에 따라 2016년 7월 한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측이 취해온 한국 문화콘텐츠 규제 조치가 풀릴지 주목된다.

BTS ‘다이너마이트’ 올해 애플뮤직 최다 재생

1일 그룹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올해 전 세계 애플뮤직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노래로 꼽혔다. ‘다이너마이트’는 지난해 8월 나온 곡이어서 눈길을 끈다. 방탄소년단은 영국 밴드 폴드플레이와 협업해 선보인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로 이날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지난주보다 8계단 상승한 29위를 차지했다. 최근 미국 LA 콘서트 이후 차트 ‘역주행’하고 있다. 그룹 트와이스도 정규 3집 ‘포뮬러 오브 러브:O+T=3’(Formula of Love: O+T=3)를 ‘빌보드 200’ 16위에 올려놓았다. 그룹 NCT 127도 정규 3집 ‘스티커’(Sticker)로 ‘빌보드 200’ 차트에서 84위를 차지했다.

‘음주 측정 거부’ 노엘, 가중처벌 여부 주목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불응 및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장용준·21)이 가중처벌될지 시선이 쏠린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이 ‘음주 측정 거부자’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 중 후자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1일 “음주 측정 거부자에는 위헌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서 노엘의 사건을 기존대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노엘은 올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9년 9월 음주운전 및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동석 주연 영화 ‘이터널스’ 300만 관객 돌파



영화 ‘이터널스’가 300만 관객을 넘어섰다. 1일 영화관 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를 보면 ‘이터널스’는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까지 누적 300만503명 관객을 불러 모았다. 11월3일 개봉해 29일 만이다. 이로써 ‘이터널스’는 올해 외화 최고 흥행작이 됐다. 마동석과 안젤리나 졸리 등이 주연한 ‘이터널스’는 할리우드 마블스튜디오의 새로운 슈퍼 히어로물로 화제를 모았다.

AOA 출신 권민아 성폭행 피해 사건 검찰 송치

걸그룹 AOA 출신 권민아의 중학생 시절 성폭행 피해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권민아의 고소에 따라 11월 초 강간상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권민아는 올해 9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학생 시절이던 2007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7色 로맨스 ‘해피 뉴 이어’…스타 연기자 다 모였네

한지민·이동욱·강하늘·이광수·고성희·임윤아 등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이 한국판 ‘러브 액츄얼리’를 꿈꾸며 카메라 앞에 나섰다. 이들의 무대는 이달 개봉할 예정인 영화 ‘해피 뉴 이어’(제작 하이브미디어코프)이다. 극장과 함께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티빙을 통해서도 공개되는 영화는 이들 톱스타급 연기자들과 함께 김영광·원진아 등 차세대 스크린 주역, 조준영·원지안 등 신예들도 주연으로 내세운다. 여기에 중견 정진영과 이해영이 또 다른 주연으로 힘을 불어넣는다.

영화는 한 호렙을 배경으로 각기 다른 사연을 지닌 인물들이 펼쳐는 다양한 로맨스의 이야기를 그린다. 15번째 짝사랑 중인 호텔 매니저 한지민을 비롯해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하우스키퍼 원진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투숙객 강하늘, 교포사업가 이해영과 그의 첫사랑이자 호텔 도어맨 정진영 등 다채로운 캐릭터가 각기 커플을 이뤄 일곱 색깔의 사랑 이야기를 전한다. 12월 개봉을 내세운 만큼 연말연시 파스



영화 ‘해피 뉴 이어’ 주연들. 왼쪽부터 고성희·김영광·한지민·이동욱·원진아·강하늘·임윤아·고성희·조준영·원지민.

사진제공 | CJ E&M

한 로맨스 분위기로 흥행을 노리는 셈이다. 톱스타급 연기자들이 대거 나선 무대라는 점은 가장 큰 기대요소로 꼽힌다. 2003년 휴 그랜트·리암 니슨·폴린 퍼스·엠마 톰슨·키이라 나이틀리 등 스타들이 함께한 극장가의 성탄시즌 스테디셀러 ‘러브 액츄얼리’를 넘어설지 주목된다. 이처럼 톱스타급 연기자들이 한 무대에서 연기를 펼치며 이야기를 엮어내 흥행한 한국영화는 2005

년 엄정화·황정민·주현·오미희·서영희·정경호 등이 출연한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이 꼽힌다. 이후 엇비슷한 감성과 형식의 작품이 없지 않았지만, 눈에 띄는 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해피 뉴 이어’에 쏠리는 충무로 안팎의 시선이 특별하게 받아들여진다. 특히 ‘엽기적인 그녀’와 ‘클래식’ 등 로맨스·멜로영화에서 특장을 과시해온 박재용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도 기대감을 키운다. 이동욱은 1일 “출연료를 깎아서라도 무조건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하늘도 “각 인물들이 상황에 대처하는 장면이 현실적이다. 공감하며 보게 됐다”면서 관객의 기대를 바랐다. 이들을 한 무대에 불러낸 박재용 감독은 이날 “시나리오가 좋아 배우 캐스팅에 확신이 있었다”고 자부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